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트럼프 2기 정책 불안감 완화, 금리 및 달러 하락 등으로 강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5일(수) 미국 증시는 테슬라(-4.0%), 엔비디아(-4.2%) 등 기존 대장주 약세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소식, 차기 미 재무 장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 완화, 시카고 제조업 PMI 부진 등으로 인한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3%, 나스닥 +0.2%).

지난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단순 기대감과 불안감의 공전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음. 이제는 예상 가능한 정책의 현실성과 유불리를 따져보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

일례로,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목된 스콧 베센트는 연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함(잠재적인 연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 그렇지만 그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제시한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축소" 정책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시장금리의 구조적인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2023 회계연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3%, 무디스 추정에 의하면 향후 5년간 7%대 예상).

관세 역시 지난 1기 시절 당시처럼 무역분쟁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자국내 투자 유치, FTA 협상 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 이를 고려 시 관세,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확대, 친환경 법안 리스크 등 특정 재료에만 주목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성은 약해질 수 있기에, 해당 트레이드 과정에서 취약한 흐름을 보였던 자산군의 가격 복원력이 생성될 것이라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 영향 속 엔비디아 CEO의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코스피 +1.3%, 코스닥 +2.9%).

금일에는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에도, 트럼프 2기 정책 불안감 완화에 따른 미국 금리 및 달러 하락, 연말 소비 기대감에 따른 아마존(+2.2%) 등 소비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음에도, 현재의 주가 반등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우려의 시각이 존재. 이는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3분기 실적시즌이 종료된 이후에도, 코스피의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25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 11월 초 320조원에서 현재 315조원대로 하향).

또 연준의 12월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등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차주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 결과에 대한 관망심리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중반 전세계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2거래일 간 휴장(금요일에는 조기 휴장함에 따라 26~27일 2거래일 간 미국 증시가 별 다른 모멘텀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단기적인 고민거리 이기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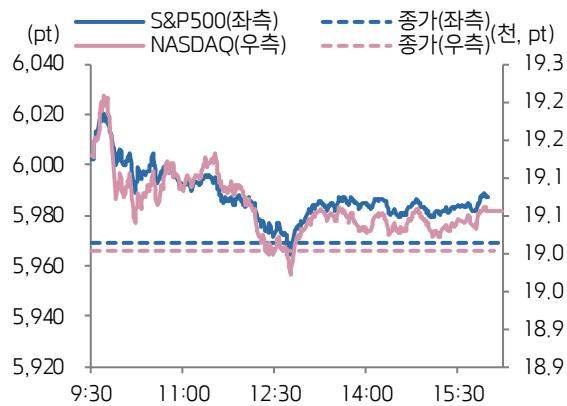
이처럼 11월 미국 대선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관론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11월 15일 코스피가 2,400pt를 하회하면서 후행 PBR 0.85배라는 역대급 수준의 저점 레벨을 기록한 이후 바닥권 인식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일단 코스피의 일간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함에 따라 중기적인 V자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그러나 최근 여러 차례 반등을 거치면서 전일자 기준으로 단기 추세선인 20일선(2,537pt선) 위로 올라

왔으며, 이전 반등장에 비해 거래대금도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25일 코스피 거래대금 13.5조원으로,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 10.9조원을 상회했으며 10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반면 코스닥 거래대금은 6.9조원으로 연초 이후 일평균 8.6조원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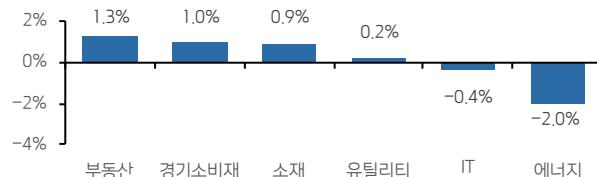
외국인은 여전히 4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상 "9월 -7.9조원 → 10월 -4.7조원 → 11월 -2.7조원(~25일)"으로 순매도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안도 요인이 될 것. 더 나아가, 주중 FOMC 의사록이나 차주 수출, ISM, 고용 등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금리와 달러의 레벨 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2,500pt 내외 레벨에서는 낙폭과 대주 중심의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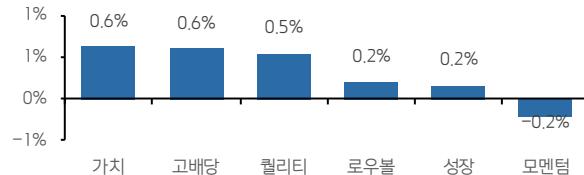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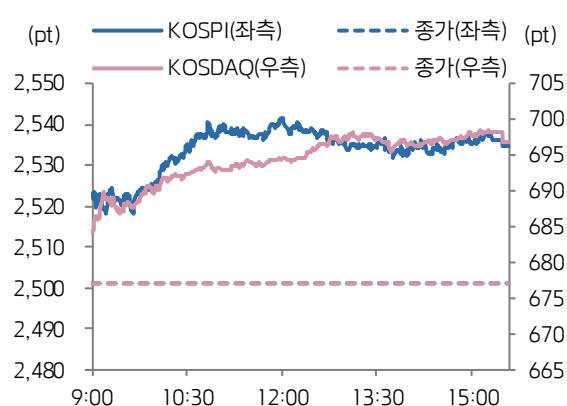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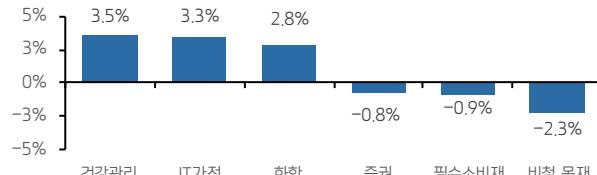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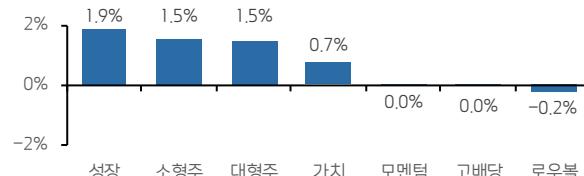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2.87	+1.31%	+21.54%	GM	60.20	+2.85%	+68.96%
마이크로소프트	418.79	+0.43%	+12.2%	일라이릴리	755.00	+0.93%	+30.37%
알파벳	167.65	+1.75%	+20.31%	월마트	89.50	-1.04%	+71.97%
메타	565.11	+1.07%	+60.13%	JP모건	250.29	+0.7%	+50.66%
아마존	201.45	+2.2%	+32.59%	엑손모빌	119.97	-1.49%	+24.09%
테슬라	338.59	-3.96%	+36.26%	세브론	160.36	-1.23%	+12.14%
엔비디아	136.02	-4.18%	+174.72%	제너럴일렉트릭	89.50	-1%	+72%
브로드컴	164.82	+0.36%	+49.24%	캐터필러	405.65	+2.05%	+39.4%
AMD	141.13	+2.01%	-4.26%	보잉	153.10	+2.55%	-41.26%
마이크론	104.48	+1.79%	+22.79%	넥스트에라	76.64	+0.8%	+29.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34.34	+1.32%	-4.55%	USD/KRW	1,399.00	-0.53%	+8.62%
코스피200	336.63	+1.28%	-5.97%	달러 지수	106.90	-0.61%	+5.5%
코스닥	696.83	+2.93%	-19.59%	EUR/USD	1.05	+0.74%	-4.93%
코스닥150	1,190.59	+4.21%	-14.56%	USD/CNH	7.25	-0.18%	+1.7%
S&P500	5,987.37	+0.3%	+25.53%	USD/JPY	154.23	-0.36%	+9.35%
NASDAQ	19,054.84	+0.27%	+26.94%	채권시장			
다우	44,736.57	+0.99%	+18.7%	국고채 3년	2,771	-4.6bp	-37.4bp
VIX	14.60	-4.2%	+17.27%	국고채 10년	2,920	-6bp	-25.5bp
러셀2000	2,442.03	+1.47%	+20.47%	미국 국채 2년	4,269	-10.5bp	+1.9bp
필라. 반도체	4,987.92	+0.65%	+19.46%	미국 국채 10년	4,273	-12.7bp	+39.4bp
다우 운송	17,754.38	+2.23%	+11.67%	미국 국채 30년	4,466	-12.2bp	+43.8bp
상해종합	3,263.76	-0.11%	+9.71%	독일 국채 10년	2,210	-3.2bp	+18.6bp
항셍 H	6,862.20	-0.36%	+18.96%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80,109.85	+1.25%	+10.89%	WTI	68.94	-3.23%	-1.43%
유럽, ETFs				브렌트유	73.01	-2.87%	-5.23%
Eurostoxx50	4,799.87	+0.23%	+6.16%	금	2,642.60	-3.46%	+21.48%
MSCI 전세계 지수	854.13	+0.32%	+17.49%	은	30.24	-3.51%	+25.55%
MSCI DM 지수	3,765.96	+0.33%	+18.83%	구리	410.00	+0.34%	+5.38%
MSCI EM 지수	1,087.27	+0.16%	+6.21%	BDI	1,537.00	-2.47%	-26.6%
MSCI 한국 ETF	58.74	+1.05%	-10.36%	옥수수	433.25	-0.46%	-15.75%
디지털화폐				밀	556.50	-1.46%	-18.07%
비트코인	93,714.51	-3.43%	+120.46%	대두	986.25	+0.28%	-21.27%
이더리움	3,439.03	+2.75%	+50.68%	커피	304.80	+0.89%	+60.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